



대림동성당

(주보성인 : 바오로)

토요 미사	오후 7시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 ※ 토요일 어린이미사 없음
주일 미사	오전 6시 (일반)
	오전 9시 (중고등부)
	오전 10시30분(교중):1~10구역
	낮 12시(교중):11~20구역
평일 미사	오후 6시 (청년)
	월·수·금·토 : 오전 6시
	화·수·목·금 : 오전 10시
	화·목 : 오후 7시 30분

사무실

주임신부(박성우 사도요한)
보좌신부(이상민 바오로)
수녀원 (장 도미니카 수녀)
(천 바울리나 수녀)
연령회회장(정기원 다마스)

TEL : 02-835-1814~5
(FAX : 02-835-1816)
TEL : 02-835-1813
TEL : 02-835-1812
TEL : 02-835-1810
H.P : 010-5476-6833

고해성사	추후 공지
병자영성체	추후 공지
유아세례	씩수달 두번째 토요일 오후4시30분(사무실에 신청)
혼인면담	매월 두번째 토요일 오전11시 (사무실에 신청)
잠가개차 축복	사무실에 수시로 신청

07440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길 10 (대림1동 919-38) / 홈페이지 <http://daerimcc.or.kr> / 이메일 daerim1004@hanmail.net

✦ 성체강복(3월4일 목요일)

매일 첫목요일 성체강복은 ‘오전10시 미사후’와 ‘오후7시30분 미사후’에 각각 있습니다.

✦ 첫토요일 ‘성모신심미사’

• 일시: 3월 6일(토) 오전10시

※ 매일 첫토요일은 오전6시 미사가 없습니다.

✦ 군중후원회 회원 모집

군중후원회는 군복무 중인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와 후원을 함으로써 신앙생활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대상: 군복무 중인 가족이 있는 세대와 군중후원회에 관심있는 교우 누구나

※신청서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어린이 복사단원 모집

• 대상: 첫영성체를 받은 4·5·6학년 어린이
(본당 교적과 주일학교 등록한 어린이)

• 모집기한: 3월 7일(주일)까지

• 문의: 초등부 주일학교 교감 010-2663-1044

※신청서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사순시기 ‘공동 십자가의 길’은 없습니다.

사순시기 매주 금요일마다 대성전에서 함께 봉헌하던 공동 십자가의 길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성전이 열려있는 낮시간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것을 권합니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를 위하여 여러명이 함께하거나,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입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2월15일~2월21일)

이름	세례명	주소	구역반
최경화	안젤라	신길동 우정2차	12-3
김태옥	미카엘	신길동 우정2차	12-5
박준정	테레사	신길동 경남아너스빌	14-3

✦ 성당청소 :

• 3월 1일(월) 17구역 청소

✦ 우리들의 정성(2월15일~2월21일)

주일헌금	4,053,300	-	-
교무금	8,265,000	성소후원금	280,000
건축헌금	250,000	군중후원금	20,000
감사헌금	최영임 마리아	30만원	익명 30만원
	장정숙 테레사	10만원	익명 20만원
	안유정 엘라사벳	10만원	익명 15만원
	홍봉선 안나	5만원	익명 10만원
	정찬우	10만원	익명 10만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공지된 내용들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평화방송 미사 시간

- 평일(월~토): 06시, 09시, 12시, 18시
- 주일: 06시, 09시, 12시, 18시, 21시

[목상글]

이미 시작된 나라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소리 높여 외치십니다.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는, 하느님이 인간과 함께 구원의 길을 시작하셨다는 이야기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의 침묵을 깨고 공생화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첫 복음은 ‘믿음’과 ‘회개’라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는 기쁜 소식, 하느님의 구원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돌아서서 그분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 즉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믿음과 회개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삶이 버겁고 힘겨울지라도 하느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기쁨과, 나와 이웃의 회개를 통해 하느님 나라가 점점 자라나고 있다는 희망을 품고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예수님의 복음 선포와 함께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실현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희망하며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삶, 믿음과 회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박병규 신부 “아침을 여는 3분 피정” 중에서